

2000~2015년 북·중 교역 변화 분석¹⁾

이용화·이해정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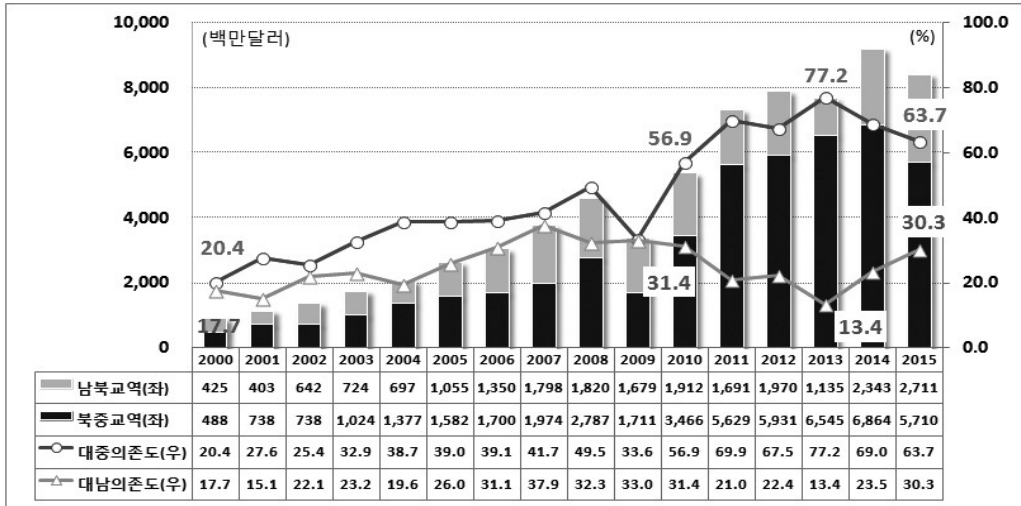
개요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對남한 교역 의존도는 2000년 17.7%에서 2007년 37.9%로 확대되었으나, 남북관계 경색 등의 영향으로 2015년 30.3%로 축소되었다. 반면,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는 2000년 20.4%에서 2015년 63.7%로 3배 이상 확대(남북 교역 포함)되었다. 한편, 남북 교역을 제외할 경우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는 동 기간 24.8%에서 91.3%로 크게 확대 되어 사실상 교역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북·중 경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어 북·중 교역의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북·중 간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 55주년(7.11)을 앞두고 북·중 경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다.²⁾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16년간(2000~2015년) 북·중 교역 전반을 비롯해 주요 수출입 품목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16년 6월 21일 발간한 “2000~2015년 북·중 교역 변화 분석”, 『현안과 과제』를 수정·보완한 것임.
2)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단둥시위원회는 제5회 중조박람회를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신개발지 귀만(國門)항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

〈 북한의 對 중국·남한 교역 의존도 추이 〉



자료 : KITA, KOTRA 통계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북한의 전체 교역액에 남북 교역 포함.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난 16년간(2000~2015년) 북·중 교역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북·중 교역 통계 자료를 특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북·중 간 전체 교역, 가공단계별, 10대 수출입 품목별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전체 북·중 교역 추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의 對세계 교역 가운데 對중국 의존도 현황, 북한의 對중국 수출입 추이 및 무역수지 등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가공단계별 북·중 교역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 기준 대분류 3단계(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중분류 5단계(원자재, 반제품, 부분품, 자본재, 소비재) 분석을 실시했다. 끝으로 북·중 교역의 10대 수출입 품목을 주요 연대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전체 북·중 교역 통계는 1998년부터 제공되나(KITA, UNCOMTRADE) 일부 누락 부분이 있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총 16년을 분석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기본적인 북·중 교역 통계는 KITA 통계를 참조해 분석했고, 북한의 對세계 교역 현황은 KOTRA(북한의 對중국 원유 수입 포함)의 북한대외무역동향을 참조하였다. 또한 가공단계별 북·중 교역 품목 변화 분석은 UNCOMTRADE의 UN BEC 통계를 활용하였다.

〈 북·중 교역 현황 분석 방법 〉

구분	주요 분석 내용	자료	비고
전체 교역	- 북한의 對세계 교역 추이 -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	KOTRA	對중국 원유 수입추정액 포함
	- 북한의 對중국 무역수지	KITA	
가공단계별	- 대분류(3단계) •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UNCOMTRADE (UN BEC CODE)	對중국 원유 수입추정액 제외
	- 중분류(5단계) • 원자재, 반제품, 부분품, 자본재, 소비재		
10대 수출입 품목별	- 주요 연대별 품목 변화 분석 • 2000, 2005, 2010, 2015년	KITA 중국해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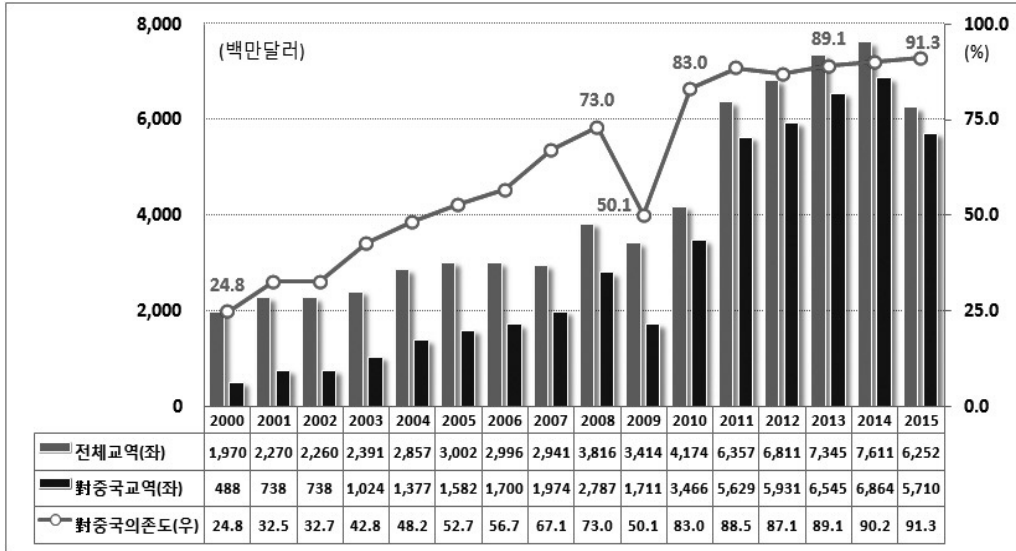
2000~2015년 북·중 교역의 특징

전체 교역 :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 심화

지난 16년 간 북한의 對중국 교역은 약 12배 증가했고, 對중국 교역 의존도 또한 3배 이상 확대되었다. 2000년 이후 북·중 교역 규모는 연평균 17.8%씩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 또한 지속 확대되고 있다.

북·중 교역 규모는 2000년 4.9억 달러에서 2015년 57.1억 달러로 약 12배 확대됐고, 동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7.8%에 달한다. 특히 동기간 북한의 對세계 교역액(약 3.2배) 및 연평균 증가율(8.0%)과 비교하더라도 북·중 교역이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북·중 교역 확대에 따라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 또한 2000년 24.8%에서 2015년 91.3%(북한의 對중국 원유 수입액 추정치 포함)로 3배 이상 확대되었다.

〈 북한의 연도별 교역 및 對 중국 의존도 추이 〉



자료 : KOTRA 통계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1) 2014~2015년 북한의 對중국 전체 교역액 가운데 對중국 원유 수입액은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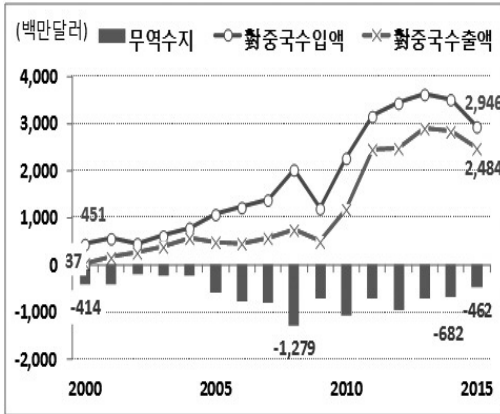
KOTRA에 따르면 2014년은 5억 달러, 2015년은 2.8억 달러임.

2) 북한의 전체 교역액에서 남북 교역(민족 내부 거래)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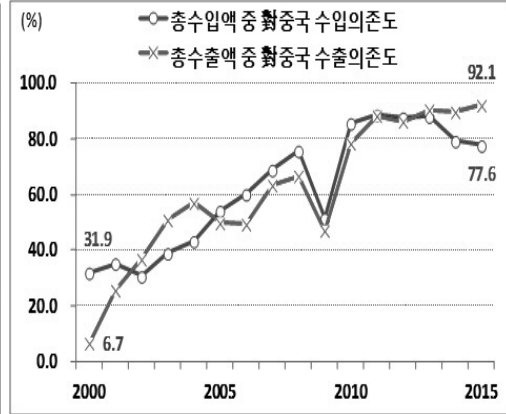
한편 북한의 對중국 무역수지가 점차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對중국 수입액은 2000년부터 4.5억 달러에서 2015년 29.5억 달러로 약 6배 이상 확대(연평균 13.3% 증가)되었다. 동기간 對중국 수출액은 약 0.4억 달러에서 24.8억 달러로 약 67배 가까이 확대(연평균 32.4%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0년 4.1억 달러에서 2010년 12.8억 달러로 급증했다가, 2015년에는 4.6억 달러(전년 대비 2.2억 달러 개선)로 감소했다.

특히 북한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크게 상승했다. 북한의 총 수입액 중 對중국 수입의존도는 2000년 31.9%에서 2015년 77.6%로 45.7%p(약 2.4배) 상승했다. 반면 동기간 북한의 총 수출액 중 對중국 수출의존도는 6.7%에서 92.1%로 85.4%p(약 13.8배) 크게 상승했다.

〈 2000~2015년 북·중 교역 추이 〉



〈 북한 對중국 수입, 수출 의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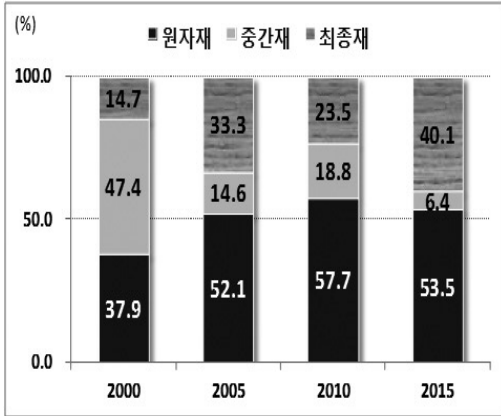
자료 : KITA 통계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2014~2015년 북한의 對중국 원유 수입액 추정치는 제외함.

가공단계별 : 중간재를 수입해 재가공하여 최종재를 수출하는 임가공무역 확대

첫 번째, 전반적인 가공단계별 북한의 對중국 수출 변화를 살펴보면, 의류 등 소비재 중심의 수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선 가공단계별(대분류 기준) 북한의 對중국 수출품 변화를 살펴보면 최종재는 크게 증가한 반면, 중간재 비중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對중국 최종재 수출 비중은 2000년 14.7%에서 2010년 23.5%, 2015년 40.1%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철광석, 무연탄 등 북한의 주요 對중국 수출품목이 포함된 원자재 비중도 2000년 37.9%에서 2015년 53.5%로 15.6%p 상승했다. 반면 2000년 47.4%로 북한의 對중국 수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중간재 비중은 2015년 6.4%로 크게 축소되었다.

특히 중분류 기준 가공단계별 북한의 對중국 수출 변화를 살펴보면, 이전에 비해 북한의 對중국 소비재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에 비해 2015년 對중국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소비재(2000년 14.3%→2005년 33.0%→2010년 22.2%→2015년 39.2%)부문이다. 특히 의류 등이 포함된 반내구성 소비재(UN BEC 코드 62)의 비중이 대폭 상승(2000년 0.2%→2005년 12.8%→2010년 14.7%→2015년 27.9%)하였다.

〈 가공단계별 對중국 수출품 비중(대분류) 〉 〈 가공단계별 對중국 수출품 비중(중분류) 〉
(%)



		'00	'05	'10	'15
원자재		37.9	52.1	57.7	53.5
중간재	반제품	47.1	14.4	18.3	6.1
	부분품	0.3	0.2	0.5	0.3
최종재	자본재	0.4	0.2	1.4	0.9
	소비재	14.3	33.0	22.2	39.2

자료 : UNCOMTRADE 통계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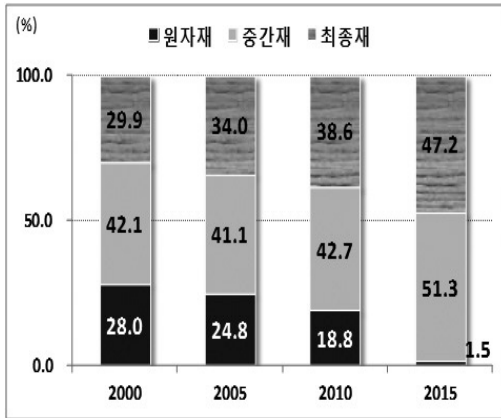
주 : 세부 품목들은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를 기준으로 분류함.

두 번째, 가공단계별 북한의 對중국 수입 변화를 살펴보면 중간재(반제품) 수입 비중이 절반 수준까지 확대된 것이 특징적이다. 가공단계별 북한의 對중국 수입품목 가운데 중간재와 최종재 비중은 지속 상승하는 반면, 원자재 비중은 크게 축소됐다. 북한의 對중국 최종재 수입 비중은 2000년 29.9%에서 지속 증가하여 2015년 47.2%로 16년 간 17.3%p 확대됐다. 한편 중간재 비중도 동기간 42.1%에서 51.3%로 9.2%p 증가하는 등 최종재 및 중간재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원자재 비중은 동기간 28.0%에서 1.5%로 26.5%p 큰 폭으로 감소³⁾하였다.

특히 북한의 對중국 소비재 수입 비중이 높아졌고, 특히 반제품 비중은 전체 수입의 절반 수준까지 근접했다. 2000년에 비해 2015년 對중국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된 품목은 소비재(9.7%p), 자본재(7.6%p), 반제품(6.5%p) 순이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재(식음료, 비내구성)와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자본재)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반제품(섬유 등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의 경우 북한의 對중국 수입 비중의 절반 수준(2000년 38.9%→2015년 45.4%)에 근접했다.

3) 2015년 북한의 對중국 수입 가운데 원유 수입 추정액을 대입하면 원자재 비중은 11.0% 수준임.

〈 가공단계별 對중국 수입품 비중(대분류) 〉 〈 가공단계별 對중국 수입품 비중(중분류) 〉 (%)



		'00	'05	'10	'15
원자재		28.0	24.8	18.8	1.5
중간재	반제품	38.9	38.4	37.9	45.4
	부분품	3.3	2.8	4.7	5.9
최종재	자본재	11.5	10.7	20.9	19.1
	소비재	18.4	23.3	17.6	28.1

자료 : UNCOMTRADE 통계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1) 세부 품목들은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를 기준으로 분류함.

2) 2015년 북한의 對중국 원유 수입 추정액(2.8억 달러)은 제외함.

10대 수출입 품목별 :

의류제품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급부상, 수입품은 기계 및 섬유류 확대

북한의 對중국 수출 10대 품목은 나무, 철강 등에서 광산물, 의류를 중심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적이다. 북한의 對중국 전체 수출액 가운데 10대 수출품 비중은 2000년 66.5%에서 2005년 74.4%, 2010년 77.4%, 2015년 78.0%로 지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최대 수출 품목은 광산물(철광석, 무연탄)이며, 최근 들어 의류제품(공산품), 전기기기 등 수출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광산물(HS 26, 27)의 경우 2000년 전체 수출의 16.2% 수준이었으나, 2015년 50.8%로 상승했고, 특히 의류제품(HS 61, 62)은 동기간 0.1%에서 32.2%로 대폭 상승하였다.

반면 나무, 철강 등 수출 품목은 이전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다. 2000년 북한의 對중국 수출비중 1, 2위를 차지하던 나무(HS 44)와 철강(HS 72)은 2000년 각각 26.7%, 23.3%에서 2015년 0.9%, 2.1%로 크게 축소되었다.

〈 2000~2015년 북한의 10대 對중국 수출품목 및 수출액 비중 변화 〉 (%)

순위	2000		2005		2010		2015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44 (나무)	26.7	27 (광물연료)	22.6	27 (광물연료)	33.4	27 (광물연료)	26.7
2	72 (철강)	23.3	03 (어류 등)	18.6	26 (광,슬랙,회)	21.1	62 (의류 2)	23.3
3	03 (어류 등)	10.9	26 (광,슬랙,회)	18.6	62 (의류 2)	13.5	26 (광,슬랙,회)	10.9
4	27 (광물연료)	9.2	72 (철강)	14.5	72 (철강)	9.1	61 (의류 1)	9.2
5	26 (광,슬랙,회)	7.0	62 (의류 2)	11.7	03 (어류 등)	5.0	03 (어류 등)	7.0
6	50 (건)	6.1	44 (나무)	3.0	79 (아연/제품)	4.0	85 (전기기기)	6.1
7	39 (플라스틱)	4.1	79 (아연/제품)	2.3	25 (시멘트류)	2.6	72 (철강)	4.1
8	78 (연/제품)	2.8	12 (과실 등)	1.4	61 (의류 1)	2.2	08 (건과류 등)	2.8
9	12 (과실 등)	2.4	61 (의류 1)	1.0	85 (전기기기)	1.8	25 (시멘트류)	2.4
10	07 (채소 등)	1.5	08 (건과류 등)	1.0	28 (희토류 등)	1.2	44 (나무)	1.5

자료 : KITA 통계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1) HS코드 2단위 기준임.

2) 의류 1은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의류 2는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제외임.

북한의 對중국 수입 10대 품목은 광물유에 대한 북한의 수입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자본재(전기기기, 기계류),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섬유 등)의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對중국 전체 수입액 가운데 10대 수입품 비중은 2000년 64.6%에서 2005년 68.5%, 2010년 64.8%, 2015년 55.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2000년 이후 북한 시장화 활성화에 따른 수입품목의 다변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입품은 전기기기(HS 85), 기계류(HS

84), 차량 및 부품(HS 87) 등 자본재를 비롯해, 인조섬유(HS 54)와 같은 반제품 수입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섬유류의 수입 비중은(HS 54, 55) 2000년 2.0%에서 2015년 7.3%로 증가했다. 반면 광물유(원유 수입 추정액 제외)와 곡물 수입은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2000년 북한의 對중국 수입비중 1위를 차지하던 광물유(HS 27)는 2000년 26.1%에서 2015년 5.0%로, 2위였던 곡물(HS 10)은 2015년 88위(0.5%)로 급락했다.

〈 2000~2015년 북한의 10대 對중국 수입품목 및 수입액 비중 변화 〉 (%)

순위	2000		2005		2010		2015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27 (광물유)	26.1	27 (광물유)	26.3	27 (광물유)	21.0	85 (전기기기)	11.3
2	10 (곡물)	7.6	02 (육류)	9.6	84 (기계류)	10.8	84 (기계류)	8.6
3	87 (차량/부품)	6.4	84 (기계류)	7.1	85 (전기기기)	8.4	87 (차량/부품)	6.7
4	72 (철강)	5.0	85 (전기기기)	5.2	87 (차량/부품)	7.0	39 (플라스틱)	5.7
5	85 (전기기기)	4.7	39 (플라스틱)	4.8	39 (플라스틱)	3.7	54 (인조섬유 1)	5.1
6	39 (플라스틱)	3.8	10 (곡물)	4.6	54 (인조섬유 1)	3.5	27 (광물유)	5.0
7	62 (의류 2)	3.7	72 (철강)	3.2	72 (철강)	3.1	72 (철강)	3.8
8	84 (기계류)	3.2	54 (인조섬유 1)	2.7	10 (곡물)	2.6	15 (동식물 유지)	3.6
9	12 (과실류)	2.4	87 (차량/부품)	2.6	55 (인조섬유 2)	2.4	61 (의류 1)	3.3
10	31 (비료)	1.7	73 (철강제품)	2.3	73 (철강제품)	2.3	03 (어류 등)	2.9

자료 : KITA 통계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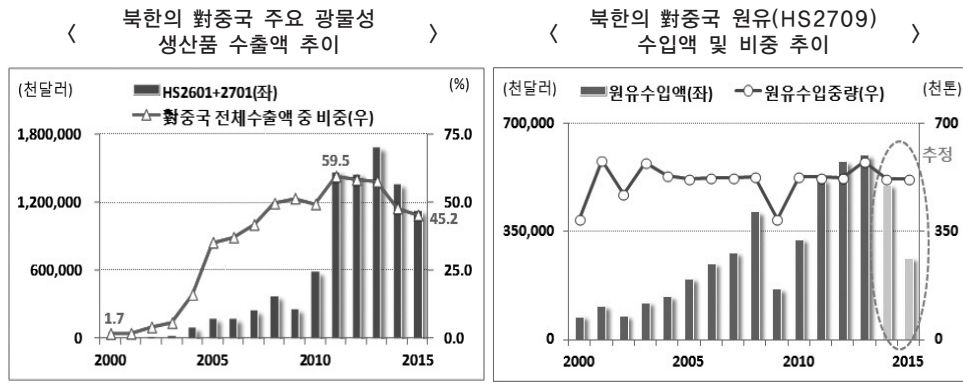
주 : 1) HS코드 2단위 기준임.

- 2) 의류 1은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의류 2는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제외임.
- 3) 인조섬유 1은 필라멘트 섬유, 인조섬유 2는 스테이플 섬유임.
- 4) 2015년 북한의 對중국 수입액 가운데 원유는 추정치이므로 제외.

【참고】 최근 북·중 간 주요 광산물 수출입액 추이

- 북한의 對중국 광산물 수출액 감소는 최근 중국 경기 둔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기인
 - 2015년 북한의 對중국 철광석, 석탄 수출액은 11.2억 달러로 감소 추세
 - 이는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이 지속 하락함에 따라 북한의 對중국 광산물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석탄(호주산)은 2008년 톤당 123.6달러에서 2015년 54.4달러까지 하락, 철광석도 동기간 2008년 151.7달러에서 2015년 52.8달러 수준으로 급락⁴⁾

- 한편 북한의 對중국 원유 수입 감소는 주로 단가 하락에 기인
 - 2013년 북한의 對중국 원유 수입중량(실적치 기준)은 2000년대 초반과 유사한 수준이나, 이후 수입단가가 상승하여 원유 수입액은 지속 증가
 - 2014년과 2015년의 경우(실적 미발표)에는 국제유가가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으로 수입액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
 - 중국해관의 원유 수출 단가 추이를 보면 2000년 톤당 197달러에서 2008년 717달러로 증가했다가, 2009년 435달러로 급감, 2015년 기준 513달러 기록



자료 : KITA, World Bank, 중국해관 통계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1) 주요 광물성 생산품의 경우 HS2601(철광석), HS2701(무연탄)으로 한정함.
 2) 2014년부터 중국의 對북한 석유(HS2709) 통계가 '0'으로 미집계. 하지만 중국 공식자료에 따르면 연간 52만톤의 원유가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수송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해당기간 국제유가(DUBAI)를 적용해 추산(2014년 5.0억 달러, 2015년 2.8억 달러)

4)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Annual prices, June 02 2016.

종합 평가

평가결과,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입 중간재를 재가공해 최종재로 수출하는 임가공무역 방식이 확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 번째, 교역 전체로 보면 지난 16년 간 북한의 對중국 교역은 약 12배 증가했고, 對중국 교역 의존도 또한 3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지속, 남북 교역 위축 등으로 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 가공단계별로는 북한의 對중국 소비재(의류 등)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반제품의 對중국 수입 비중은 절반 수준까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북한의 對중국 수입품 중 소비재(식음료, 비내구성)와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북한의 소득수준 개선을 시사한다. 끝으로, 10대 수출입 품목별로는 북한의 對중국 수출은 광산물, 의류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對중국 수입은 전기기기·기계 및 섬유류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統

〈 2000~2015년 북·중 교역 특징 비교 〉

구분	북한의 對중국 수출('00년 대비 '15년)	북한의 對중국 수입('00년 대비 '15년)
전체 교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중 교역 규모 12배(4.9억 달러→57.1억 달러) 증가 - 對중국 교역 의존도 3배(24.8% → 91.3%, 원유 수입 추정액 포함) 이상 확대 	
가공 단계별 (대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재 상승, 중간재 하락 • 최종재 : 25.4%p 상승(14.7%→40.1%) • 중간재 : 41.0%p 하락(47.4%→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재 상승, 원자재 하락 • 중간재 : 9.2%p 상승(42.1%→51.3%) • 원자재 : 26.5%p 하락(28.0%→1.5%)
가공 단계별 (중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 등 소비재 비중 상승 • 24.9%p 상승(14.3%→3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제품 비중, 전체의 절반 수준 근접 • 6.5%p 상승(38.9%→45.4%)
10대 수출입 품목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제품이 주요 수출품으로 급부상 • 광산물 : 34.6%p 상승(16.2%→50.8%) • 의류 : 32.1%p 상승(0.1%→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기기·기계 및 섬유류 비중 증가 • 전기기기 : 6.6%p 상승(4.7%→11.3%) • 기계류 : 5.4%p 상승(3.2%→8.6%) • 섬유류 : 5.3%p 상승(2.0%→7.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평가.

주 : 가공단계별, 10대 수출입 품목별 평가에서는 북한의 對중국 원유 수입 추정액 제외.